

## 옛 틀의 형제 에돔에서 복음적인 형제로

### - 복음으로 여는 오바다 -

오바다 1:10-14, 마태복음 5:43-48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때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만, 오직 믿음만, 오직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그릇이므로, 렘넌트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말씀에서 하나님과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없이 절대 안된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줄 믿는다. 또한 대충 구원받고 오직 예수 말하면서 성장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절대 불가능한 모습인데 복음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된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지 않으셨는가. 여러분도 지금은 연약하지만 성장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영적 서밋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 62가지이다. 오늘은 오바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오바다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지만 다른 선지자들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경을 보면 사사건건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형제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냐. 결국 멸절하리라.’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바다서이다. 오바다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형제들을 사랑하라.’ 한 가지이다. 오바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형제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을 행했던 에돔 족속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지만, 언약 안에 있는 유다 족속은 결국 포로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시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왜 용서할 수 있는가. 형제, 친척,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결국 승리할 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해도 된다.

### 1. 에돔 족속의 잘못된 옛 틀은 어떤 것이었을까.

(1) 에돔 족속은 형제 민족이면서, 이웃이었던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다. 그래서 오바다 1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돔 족속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2) 유다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하고 비꼬았다. 오바다 1장 12절 하반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3) 에돔 족속은 유다족속이 환난을 당할 때 그 기회들 타서 적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

(4) 에돔 족속은 심지어 바벨론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유다족속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오바다서 1장 14절의 말씀은 이러한 에돔 족속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 ‘네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같은 동포를 체포하여 넘기고 고문했던 동족들도 있었다. 왜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인가? 그 이유는 그 영이 사탄에게 지배 받은 영적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영원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기를 바란다. 창세기 3장의 결과로 가장 먼저 나타난 결과가 형제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흑암을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복음운동의 결과요, 열매이다.

### 2. 두 번째는 형제사랑에 대한 성경말씀을 찾아보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알고 실천해야 할 전도자의 삶이며 영적인 새 틀이다.

(1)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즉 형제가 함께 협동하고 함께 복음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게 보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션홈의 축복이다. 그러나 미션홈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희생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미션홈의 생활은 어려울 수 있지만, 승리한다면 진정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여 얻을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헌금하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23절에서 24절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이것이 중요한가? 만약에 우리들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그것은 종교생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이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즉,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반대로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4) 사도 바울도 형제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5)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형제사랑에 대하여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형제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6) 형제사랑은 참된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중 가장 중요한 형제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7) 하나님께서 오바다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언약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되고 승리한다는 것이다. 오바다 1장 19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에돔 족속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괴롭힘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 봐도 괜찮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양보할 수 있어야겠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결코 싸우거나,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란다. 반드시 언약의 백성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바다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다. ‘그들이 네겟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겟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

신 기업과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틀이다.

## 결론으로 끝으로 오바다서와 미래전도를 위한 6단어를 알아보자.

1. 첫 번째 Leverage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나의 레버리지가 되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러한 힘과 레버리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 과정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언약이 없었던 에돔 족속은 패망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었다.

2. 두 번째는 Vessel이다. 세계복음화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가까운 형제들과 사랑하며 지낼 수 있어야 한다.

3. 세 번째는 Transmission이다.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을 전달하는 치유의 사명자가 되어야겠다. 많은 치유가 있지만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여러분은 완전 치유된 것이다. 그것이 완전 복음이다.

4. 네 번째는 Nobody이다. 사이가 떨어진 인간과계를 회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절대 불가능이다.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이웃 나라와 국제관계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한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 역할을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란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5. 다음은 Platform 이다. 만약에 모든 이웃과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인턴십이다. 다 잘하는 데 윈니스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지속, 개혁될 수 없다.

6. 마지막 단어는 Outsourcing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탄의 역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윈니스의 문화를 확산 시킬 제자를 양육해야겠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땅 끝까지 증거 하는 237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이지만 오바다서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전도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우리의 각인과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가장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